

#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 관계에 대한 동시적 분석\*

## A Simultaneous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ork and Market Work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정 순 희

교 수 문 속 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Assistant Prof. : Soon Hee, Joung

Prof. : Sook Jae, Moon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Researchers have largely overlooked the direct effects of household responsibilities on earnings, instead focusing attention the effect of woman's employment o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or on family life. Given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married women already work outside the home, and their numbers are likely to be increae to some extent, those concerned with the well-being of employed-married women and of their households may focus their attention on how best to provide good policy to manage woman's dual roles.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o find out factors which affect women's housework time.
- 2)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work and market work.

Data are obtained from 259 households with employed-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women's wages are reduced by time spent on housework. Women's

\* 199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내 교수연구기금에 의해 이루어진것임.

housework time is insignificantly related to women's wages.

- 2) women's occupation status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their wages.
- 3) women's age and other family income are generally negatively related to their housework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ousework has a direct effect on wages by reducing the amount of energy and efforts available for market work, lowering economic status of women.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20년여년 동안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괄목할만한 성장추세를 보여왔다(예를 들면 1970년에는 36.9%였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993년에는 48.3%)(노동부, 1994). 여성 교육수준의 증가나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분야의 출현 등의 사회적 유인력,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대체재의 출현과 같은 노동수요 차원에서의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자아실현 및 지위획득의 욕구 등 내적동기 유발과 같은 노동공급 차원에서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있다(Blau & Ferber, 1986).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구조하의 성별분업관념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여건 속에서 가정내 가사노동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의 취업현상은 결국 주부에게 가정 밖의 시장노동과 가정내 가사노동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런 과중부담은 가정내생산의 양과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부가 시장작업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노동량감소를 가져와 시장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개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시장생산성은 주부에 의한 전적인 가사노동수행이라는 관행에 경제적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주부의 문제를 일층 악화시키는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전체인구중 취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현 시점

에서 취업기혼여성의 이중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취업주부의 갈등이 가족전체의 갈등과 맞물려서 가족안정성과 복지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떤 특정한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 관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미약하다는데 있다. 즉 지금까지 취업주부에 관한 연구는 주부취업이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이나 취업에 따른 주부 자신의 역할 수행상의 문제점 파악(구혜령, 1990; 김은주, 1980)과 같은 단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 정작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에 어떠한 상호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관계를 규명해줄 수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간의 관계규명은 취업과 더불어 가사노동의 전담이라는 이중역할이 주부의 가사노동 효율성과 시장노동 효율성 각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용가능한 자원의 최적분배와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재분배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취업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모색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파악한다.

둘째, 주부의 가사노동이 시장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시장생산성수준이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동시적으로 분석한다.

## II. 관련연구의 고찰

### 1.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의 관계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부의 시장활동이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 및 전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을 조사하는 일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부부간의 불공정한 가사노동 분담이 주부의 시장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양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간과되어져 왔다.

먼저 주부취업이 가정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혼여성의 취업이 주부의 결혼 및 생활만족도나 역할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취업에 따른 역할 수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구혜령, 1990; 김은주, 1980; 최자령, 1991; Burke & Weir, 1976; Keith & Schafer, 1988; Kelly & Voydanoff, 1985; Wright, 1978). 각각의 연구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와 연구방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들 연구가 제시하는 바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사노동과 직장에서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서 오는 이중역할로 인해 역할 갈등을 일으키며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들 연구의 기저를 이루는 사고는 주부가 취업된 경우에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이연주, 1984; 이정수, 1984; Abdel-Ghany & Nickols, 1983; Goebel & Hennon, 1984; Nickols & Metzen, 1978; Sanik, 1981; Walker & Woods, 1976).

한편 지금까지 가사노동이 구성원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Coveman(1983)의 연구는 가사노동시간과 주당 임금간의 관계를 조사한 전형적인 예로서,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경우에 가사노동이 주당 벌어들이는 임금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Hersch(1985)도 주부의 근로소득은 그녀가 수행한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남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이 근로소득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가사노동시간과 임금률간의 부적인 관계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Mincer & Polachek, 1974; Polachek, 1981).

임금과 가사노동시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Hersch(1991)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그는 주부의 경우에 가사노동이 임금에 그리고 임금이 가사노동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남편의 경우에는 그의 가사노동시간이 임금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은 여성의 시장노동으로 인해 가사노동이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가사노동이 여성의 시장노동 효율성에 영향을 줄을 나타냄으로써 시장노동과 가사노동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관련변수의 고찰

관련변수는 사용된 종속변수에 따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먼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이미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를 해왔는데, 예를 들면 Douthitt과 Zick(1988), Hall과 Schroeder(1970), 그리고 Nickols와 Metzen(1978)은 가족의 규모가 크거나 재정적 자원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Walker와 Woods(1976)는 자녀수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한 자녀일 때는 무자녀인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약 3시간이 증가하고, 한 명 증가시마다 하루평균 약 1시간씩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임정빈(1981), Evenson(1983), 그리고 Schultz(1963)

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가사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한경미(1987), Nickols(1978), Hafstrom과 Schram(1983) 그리고 Maret과 Finlay(1984)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사노동시간이 무관하다고 함으로써 선행 연구자들간에 불일치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편 주부연령과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결과는 주부 연령과 가사노동시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이 둘간에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즉 주부의 특정 연령대는 그 이전 연령대나 더 높은 연령대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이다(Hall & Schroeder, 1970). 이에 반해 주부의 연령과 가사노동시간간에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Maret & Finlay, 1984)

Hersch(1991)는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가 더 높은 임금률을 가짐을 보고했으며, 이외에도 문숙재, 김순미 및 정순희(1994), Lindsay(1971), Mincer와 Polachek(1974), Psacharopoulos(1985) 등과 같은 많은 연구에서도 교육수준과 임금수준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주부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임금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문숙재 외, 1994; Devine & Kiefer, 1991; Hersch, 1991).

한편 임금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부의 연령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에 대한 경험과 근속년수가 증가함으로써 더 높은 임금을 획득하기 때문이다(Abraham & Farber, 1987; Brown, 1989; Maranto & Rodgers, 1984). 특히 연령과 임금간에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여 일정 연령까지는 소득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유행을 보인다는 것이 지적되었다(문숙재 외, 1994; Medoff & Abraham, 1980; Mincer & Polachek, 1974).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보건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는 무엇보다 주부의 임금률, 가족수나 자녀수, 교육수준, 연령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부의 임금률에는 직업, 교육수준 및 연

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척도

본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취업상태에 있는 65세 미만의 취업주부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1995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300 취업주부가정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중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259부의 설문지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1인 가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2.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주부의 높은 임금률은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를 더 많이 허용해 주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고 제한된 시간조건하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그녀의 소득력 혹은 소득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시장임금과 가사노동 투입시간은 더불어 결정되어진다고 가정되어 임금률-가사노동시간체계라는 연립 방정식이 구성·추정되었다. 임금 방정식은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에 의해 증대된 표준 인적자본 모형을 취한다. 임금변수 이용시 어떠한 변수형태가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완전한 해결책을 갖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임금률이라는 것이 특성상 어떤 영향요인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그 증가폭이나 감소폭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의 로그가 주당 가사노동에 투입된 시간, 주부의 교육수준, 참여직종, 주부의 연령에 대해서 회귀되어졌다(Abraham & Farber, 1987; Borjas, 1987; Brown, 1989; Hamermesh & Wolfe, 1990).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한가지 요인은 시장임금률이다. 또한 가사노동 투입시간은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 태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개인적 특성과 가정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수, 주부의 연령이 포함되었다(채옥희, 1995; Hall & Schroeder, 1970; Sanik, 1981). 이외에도 주부소득의 가족소득(총가족소득에서 주부자신의 근로소득을 뺀 것)은 가사노동에 대한 대체재를 구입할 수 있는 가정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함 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코딩방법이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본 연구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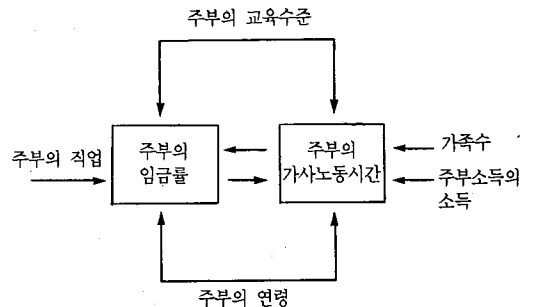
<표 2>는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조사대상인 259가정의 월평균 총가정소득은 2,446,000 원이었고, 이중 약 39% 정도가 주부의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주부의 평균 시간당 임금률은 7,115원이었으며, 하루 총가사노동시간은 7시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변 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가사노동시간	조사시점전 1주동안 식사준비, 청소, 장보기, 세탁, 자녀 돌보기 등에 투입한 총 가사노동시간
임금률	시장노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시간당 임금의 자연로그
주부소득의 소득	한달동안 가족성원 전체가 벌어들인 총 근로소득, 자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총합에서 주부의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의 실제액수
주부의 직업유형	주부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유형으로 단순 및 서비스직 1 판매직 2 자영업 3 사무직 4 경영관리, 전문직 5로 처리
주부의 교육수준	실제 주부가 교육받은 년수
주부의 연령	실제 주부의 연령
가족수	표본 가족내에 상주하는 실제 가족성원의 수

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모형이 다음의 <그림 1>이다.

위와 같은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임금률과 가사노동시간간의 관계 및 영향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해 2 Stage least squares(2SLS) 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적합한 통계 package인 Shazam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여 설문지 조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분석했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특 성	
월평균 가계소득(원)	2,446,000(원)	주거소유유형:	
주부소득의 소득(원)	1,492,200(원)	자가	52.6
주부의 임금률	7,110(원)	타가	47.4
총가사노동시간	7 시간 44 분	주부의 교육수준	
가사노동시간	3 시간 50 분	중졸 이하	8.1
자녀양육시간	3 시간 54 분	고졸 이하	43.9
가족수	3.9(명)	대졸 이하	35.7
주부의 연령: 평균(세)	38.4	대학원 이상	12.3
30세 이하	19.9	주부의 직업유형	
31-35세 이하	25.1	단순 및 서비스직	12.6
36-40세 이하	18.1	판매직	20.9
41-45세 이하	17.5	자영업	19.2
46-50세 이하	8.8	사무직	26.5
50세 이상	10.6	경영관리, 전문직	20.5

간 44분이었다. 특히 내용별로 분류해서 보면 총가사노동시간의 반정도는 식사준비, 세탁, 청소와 같은 가사일에 투입하였고, 나머지 반을 자녀돌보기에 투입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이었고, 주택보유율은 53%로 나타났다. 주부의 평균연령은 38세로 이들의 절반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주부의 직업유형은 사무직이 2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판매직(20.9%), 경영관리, 전문직(20.5%), 자영업(19.5%) 순이었다.

## 2. 2 SLS 분석결과

포함된 모든 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해 본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3〉 참고).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제안했던 모든 변수들이 동시적 분석에 포함되어졌다. 본 연구의 동시적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분석결과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연구결과 주부의 시장임금률은 그녀가 가사노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했느냐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조건하에서 전적으로 주부에게 부과되어 있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노력과 에너지를 고갈시켜 결국 주부의 소득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녀가 받는 주당 임금수준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Coveman(1973)나 Hersh(198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지지해주고 있다. 다만 본 연구와 타연구에서 사용된 임금의 조작적 정의와 가사노동의 단위 및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자들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부연령의 경우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여 Hall과 Schroeder(1970) 그리고 Sanik(198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연령과 가사노동시간간 부적 관계는 주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린자녀의 존재가 능성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모의 시간에 대한 가정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부의 임금률은 주부의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

〈표 3〉 변수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가사노동시간							
2. 임금률	-.12						
3. 주부소득의 소득	-.24**	.44**					
4. 주부의 직업유형	.12	.23*	.14				
5. 주부의 교육수준	-.02	.03	-.04	.05			
6. 주부의 연령	-.33**	.12	.27**	-.05	.04		
7. 가족수	-.13	.29**	.32**	.12	.03	.42***	
평 균	464 분	7,115 원	1,792,222원	+	10.71년	38.40세	3.85

주1: \* p<.01 \*\*\* p<.001

주2: +: 가변수화한 변수임.

〈표 4〉 임금률과 가사노동시간 방정식의 2SLS 추정치

독립변수 \ 종속변수	임금률의 로그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0.49E-03(0.19E-03)***	
주부의 직업유형	0.51E-01(0.16-01)***	
주부의 교육수준	0.71E-03(0.66-02)	
주부의 연령	0.48E-02(0.62-02)	
임금률의 로그		43.79(33.54)
주부의 교육수준		-0.51(2.63)
주부의 연령		-9.54(2.59)***
가족수		16.43(22.24)
주부소득의 소득		-0.25(0.14)*
-INTERCEPT	-0.91(0.31)***	806.56(102.91)***
R2	0.08	0.13

주1: \* p<.01 \*\* p<.05 \*\*\* p<.001

주2: (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의 경우 가사노동 수행은 시장노동과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주부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의 유형이 아니라 시장노동에 우선하여 수행 되어져야 하는 핵심역할로 간주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주부의 연령과 임금률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과 그 직종에 종사한 근속년수가 비례하며, 이에 따라 임금수준도 증가한다고 했던 본 연구의 가정과 불일치하는 결과이

다. 그러나 본연구 표본의 과반수 이상이 판매직과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들 직업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직업이 아니며 종사자의 직업 입출 변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연령과 임금률간에 무의미한 관계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주부소득의 소득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적으로 관계되어 있었다. 이는 가사일을 관리,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가사노동을 시장재화나 용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유급의 시장재로 가사노동을 기꺼이 대체함으로써 가사노동수행의 역할에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부의 직업유형은 시간당 임금률과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는데, 즉 특정기술이나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단순직이나 사무직에 비해 더 높은 임금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임금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고 주부의 가사노동수준이 시장생산의 지표인 임금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임금률이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밝히고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85 취업주부가정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주부의 가사노동수준은 그녀의 임금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주부의 임금률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받는 임금률이 높다고 해서 그녀가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는 적어도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라는 역할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제 1의 역할이므로 주부의 임금률이나 다른 시장역할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부의 가사노동 수행은 어떤 평등성, 효율성 혹은 다른 경제적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가정내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역할인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취업주부의 복지에 그리고 취업주부가정의 복지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부의 가사노동수행이 그녀의 임금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주부 임금이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참여와 이를 통한 자아실현 및 독립성에 점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주요 갈등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가족의 결혼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성노동력의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 계속적으로 주부의 직업역할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여성에게 이중역할 수행을 요구한 채 가정내 성별 노동분담의 관행을 고수하려 한다면, 취업주부의 갈등문제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취업주부가 가정역할과 시장역할을 성공적으로 관리해갈 수 있는 길은 개인 주부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적,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족전체가 가사노동이 공동의 욕구충족수단임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을 공유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노동분담 의식에서 탈피하여 역할의 평등의식을 보편화시키도록 해야한다. 더 나아가 제도적으로는 취업주부의 역할과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융통성있는 노동스케줄, 부모유급휴가 등과 같이 남성과 여성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되어 노동책임과 가족책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고안,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실행을 통해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보다 많이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평등한 가정내 노동분담을 증진시키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시간의 영향요인 규명에 있어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도 및 성역할 태도 변수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Wheeler & Arvey, 1981), 보다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심리적 요인을 포함시켜 가사노동 영향요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금을 영향요인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연구가 임금률의 주요 결정요인중의 하나가 그 직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험과 근속년수라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참여직업의 특성에 구체적인 정보들을 포함,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주부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는데, 주부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은 남편이 얼마만큼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는가와 남



편이 어느정도 아내의 직업을 지원해주고 있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부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이들과의 상호역동적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구혜령 (1990).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은주 (1980). 도시주부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노동부 (1994).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4)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1994) 역.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학지사.
- 5) 신은숙 (1981). 한국여자교수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연주 (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 7) 이정수 (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 8) 임정빈 (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7.
- 9) 채옥희(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 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 10) 최자령 (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한경미 (1987).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Abdel-Ghany, M. S., & Nickols, S. Y. (1983).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3).
- 13) Abraham, K.G. & Farber, H.S. (1987), Job duration, seniority, and earnings, *American Economic Review*, 77(3), 278-297.
- 14) Blau, F. D., & Ferber, M. A. (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15) Borjas, G.J.(1987).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4), 531-553.
- 16) Brown, J.N.(1989). Why do wages increase with tenure? On-the-job training and life-cycle wage growth observed within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79(5), 971-991.
- 17) Burke, R. J., & Weir, T. (1976). Relationship of wife's employment status to husband, wife, and pair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 18) Coveman(1985), Gender, domestic labor time, and wag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623-637.
- 19) Devine, T.J. & Kiefer, N.M. (1991). *Empirical labor economics: The search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99-308.
- 20) Douthitt, R.A. & Zick, C.D.(1988). Taxes and the time allocation pattern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Cross-cultural comparis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41-157.
- 21) Evenson, R.E. (1983).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havior Science Research*, 17(3), 196-215.
- 22) Goebel, K.P. & Hennon, C.B. (1984). Husband-wife division of labor and quality of family lif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61-72.
- 23) Hafstrom, J.L. & Schram, V.R. (1983).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245-255.
- 24) Hall, F.T. & Schroder, M.P.(1970).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1), 23-29.
- 25) Hamermesh, D.S. & Wolfe, J.R.(1990).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and the duration of wage

- loss, *Journal of Labor Economics*, 8(1), 175-197.
- 26) Hersch, J. (1991). The impact of nonmarket work on market wages, *American Economics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81(2).
- 27) ——— (1985). The effect of housework on earnings of husbands and wives, *Social Science Quarterly*, 66.
- 28) Keith, P. M., & Schafer, R. P. (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 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9.
- 29) Kelly, R. F., & Voydanoff, P. (1985). Work/family strain among employes patterns. *Family Relations*, 34.
- 30) Lindsay, C.M.(1971). Measuring human capital retur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9, 1195-1215.
- 31) Maranto, C.L. & Rodgers, R.C.(1984), Does work experience increase productivity?: A test of the on-the-job training hypothesi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3), 341-357.
- 32) Medoff, J.L. & Abraham, K.G.(1980), Experience, performance, and earning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5(4), 703-736.
- 33) Mincer, J. & Polachek, S.(1974), Family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arnings of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2), S76-S108.
- 34) Nickols, S. Y., & Metzen, E. J. (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2).
- 35) Polachek, S.W.(1981). Occupational self-selection: A human capital approach to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uc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3(1), 60-69.
- 36) Psacharopoulos, G. (1985). Returns to education: A further international updat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4), 583-604.
- 37) Sanik, M. M. (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A decade comparison 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 38) Schultz, T. (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39) Walker, K. E., & Woods, M. E. (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 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0) Wheeler, C.L. & Arvey, R.P.(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10-20.
- 41) Wright, J. D. (1978). Are working women really more satisfied?: Evidence from several nation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